



경양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돌레길이 최근 방죽 관련 심터와 벽화 등으로 새단장 되고 있다.

골목은 하루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모든 길들은 결국 골목으로 귀여지기 위한 길이다. 대로는 골목으로 연결되기에 의미가 있다. 길은 골목에서 대로로, 다시 골목으로 연결되며 그곳에 흐르는 게 시간만이 아니라 사건이게 한다. 한쪽에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멀어져야 한다. 길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며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길은 살아있다. 그 스스로는 생명이 없지만 살아있는 것들과 더부살이하며 자연이 깃들고 사람을 닮아간다. 길 위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층이 되어 쌓여간다. 골목에 늘어난 집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휴식의 공간이다. 그랬었다. 광주의 골목길 10곳을 둘러보는 여행을 시작한다.

‘은혜 깊은 개미’ 전설 따라 도심 속 별난 골목을 걷다

광주의 골목길

① 계림동 경양마을 돌레길

계림동 흙플러스를 검색한다. 퍼즐처럼 얽혀있는 블럭들 사이로 별스럽게 생긴 골목이 보인다. 광주고등학교 정문 앞쪽에 서부터 흙플러스 계림점 옆길까지 각각의 블럭들 틈에서 반원 형태로 나있는 골목, ‘경양마을 돌레길’이다.

경양마을은 본래 경양지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던 곳이며 그 돌레길은 경양지를 둘러싼 경양방죽이 있던 자리다. 1937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매립 이후 현재처럼 거주지가 들어선 것이다. 먼저의 매립은 일제가 행한 공사였고 차후 매립은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된 공사였다.

그렇다면 이 저수지의 기원은 언제일까? 그 발원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오른다. 1440년 세종대왕이 시행한 중농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근대에 들어서서 유원지로써 기능했다. 현재 경양마을 돌레길을 걷다보면 개미모양의 프린트와 벤치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경양방죽 공사와 관련된 설화를 스토리텔링한 결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경양마을 주택에 그려진 벽화.

전라감사 김방이 광주에 와보니 몇년째 이어진 흉년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이에 김방은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양방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방죽터에서 엄청난 개미집을 발견했다. 방죽이 완성되면 개미집도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하여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고 이후 개미들이 그 답례로 쌀 뒤주를 채워주었다는 이야기다.

현재 경양마을은 장조마을로 지정되어 적지않은 구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몇해 전부터 경양방죽을 복원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북방길의 옛터(현재의 돌레길) 황토길로 포장하고, 각종 방죽관련 심터와 벽화, 화단조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이뤄진 부분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추억마을이나 문화

마을이나 하는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어디 추억과 문화라는 게 건물 올리듯 딱딱 만들어지는 것이던가.

과거에는 은혜를 입은 개미들이 뒤주를 채워주었을 지 몰라도 오늘날의 개미들은 저 먹고 살기도 바쁘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반복적인 일을 하며, 주말을 기다린다. 정신없이 주중을 보내고 주말이면 옛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향해 떠난다. 속소를 예약하고, 아웃도어를 갖춰입고, 현지의 맛집을 검색하고, 매표를 한다. 그리고 귀가해서는 노곤해진 몸으로 드러눕는다. 그걸 힐링이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버티고, 이따금 과거로 건너가 힐링을 한다.

살이 각박해지고 복잡해질 수록 그러한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욕구도 커진다.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현실이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일시적인 탈주는 그 다음을 버티게 하는 동력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자세는 현실 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 시도가 있고 나서 우리의 삶은 사건이 된다.

<김용태 시민기자·소설가>

광주시, 올 시민대상 수상자 4명 선정

사회 강동호·예술 방아순

체육 최상준·경제 이도재



강동호



방아순



최상준



이도재

광주시는 13일 2014년도 광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오형국 행정부시장)를 열고 사회봉사·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4개 부문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사회봉사대상 강동호(59·주)태호산업개발 대표이사) ▲예술대상 방아순(67·시 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보유자) ▲체육대상 최상준(77·남화토건(주) 대표이사) ▲지역경제진흥대상 이도재(67·전남대 명예교수) 등이다.

강동호(주)태호산업개발 대표는 이웃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새마을 금고육성, 청소년 장학 지원 및 청소년 선도 활동,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 기초질서 지키기 등 선진문화도시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방아순 명창은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6호 동초제 ‘춘향가’ 보유자로, 사비를 털어 ‘서봉전국국악경연대회’를 이끌어오는 등 국악 보급과 대중화, 후학 지도는 물론 수많은 해외공연을 통해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린 공로가 인정됐다.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는 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전개, (사)빛고을스포츠클럽을 창단 등 생활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이도재 전남대 명예교수는 전남대 공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생체의료용 소재부품산업’이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차고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유지, 국산화 기술 개발,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학술대상 수상자는 대상자가 없어 올해의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점자단말기·특수키보드 등

광주시 68종 제품이 80% 보조

광주시가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보급 기기는 ▲점자 정보 단말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시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광주시가 제품에 보조기기 40종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지체·뇌병변장애

에 보조기기 12종 ▲영상 전화기, 언어소통 보조기, 언어 훈련 소프트웨어 등 청각 및 언어 보조기기 16종 등 총 68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광주시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 수급대상

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7월18일까지 정보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정보보존진흥원(1588-2670), 광주시 정보보담담당관실(062-613-2615).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호응’

구입가 0.3% 요금 3일 임대

광주시가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한 값에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벌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것으로,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나 시에 농지를 두고 있는 경작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보유한 농기계는 육묘용 파종기, 트랙터 등 31종 122대이며 임대기간은 대당 3일, 임대료는 구입가의 0.3~0.4% 수준이다. 이용의 편리성과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어 올해 4월말 현재 21종 247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광산구 평동로 639-22)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062-613-5273, 5329)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야생진드기 첫 사망자 발생...야외활동 예방수칙 준수 ‘비상’

광주시는 지난 10일 충남에서 야생진드기로 인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첫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 활동 시기(4월~11월)에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이나 긴옷을

착용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작은소참진드기 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지난해 광주지역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36명의 환자

가 발생해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했다.

광주시는 진드기 등 감염병 발생 조기 차단을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질병정보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체계, 역학조사반을 운영, 하절기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제8기 인문학강좌 수강생모집 인문학, 그 향을 말하다

5.15-7.03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8주) / 동구청 앞벤처빌딩 7층 대강당

개강일시 2014년 5월 15일(목) 저녁 7시 등록비 100,000원(입사 2회 포함)

접수문의 대동문화재단 문화사업팀 TEL. 070-4496-5510, 062-674-6567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daedongc.com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강의일정	날짜	내용	강사
1강	5.15	김성녀의 소리사랑 이야기	김성녀 배우, 국립청극단 예술감독, 중앙대 교수
2강	5.22	Again and Again (Again 1976)	채은옥 가수(빛물, 석별, 어느날 갑자기 등)
3강	5.29	사대부의 유배와 낙남 -그 명과 배	조상열 사대동문화재단 대표, 인문학 전문 강사
4강	6.5	문화용성시대 -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	임홍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전 중소기업체 차장
5강	6.12	화가의 정원 -죽실한 원림	박태후 문인화가, 죽실현 대표
6강	6.19	책이란 무엇인가 -말의 뿌리, 글의 뿌리 그리고 책의 뿌리에 대하여	이기용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7강	6.26	도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조용갑 성악가, 베르디국제콩쿠르 1위 수상
8강	7.3	관음으로 꽃 피우는 문화	서경주 전 광주MBC사장, 영국카디프 웨일즈대학 석사

현장답사 1회, 5월 24일(목) 강릉 선교장 - 허준 생가 - 경포대 2회, 6월 6일(금) 충북 제천 의림지 - 단양 팔경 - 고수동굴

* 강의 일정 및 현장 답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대동문화재단** **빛고을문화대학** **광주광역시** **대동문화재단**